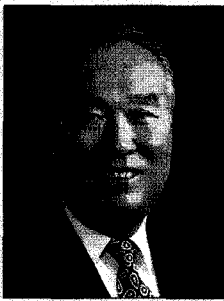


박영인 박사의 **삼장통합** 특강 시리즈(8)



박영인 박사
미국곡물협회

- 목 차 -

- 1월호 / 농업연관 1,2,3차 산업
- 2월호 / 계육산업과 삼장통합
- 3월호 / 통합경영과 삼장통합
- 4월호 / 소비자 지향 계육산업
- 5월호 / 삼장통합과 농장기능
- 6월호 / 삼장통합과 공장기능
- 7월호 / 삼장통합과 시장기능
- 8월호 / 부분통합과 완전통합
- 9월호 / 기업통합과 협동통합
- 10월호 / 소유통합과 계약통합
- 11월호 / 통합주체와 사육주체
- 12월호 / 삼장통합의 이익배분

삼장통합(계열화체계)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 통합하는 방식, 형태, 정도, 주체, 진행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 가운데 통합정도에 의하여 구분하는 부분통합과 완전통합에 대하여 이번 호에서 설명한다. 먼저 통합과 비통합을 살펴본다.

통합과 비통합

통합(integration)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통합 이전의 개별경영(individual operation)방식을 편의상 비통합(非統合, non-integration)이라 칭한다. 비통합은 가장 전형적인 경영방식이다. 각 경영체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하고 경영결과에 책임지는 형태이다.

그러나 농업과 같이 소재 중심형(raw determined)산업인 경우에는 소비자 지향적으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의 통합이 불가피하므로(본 시리즈 2002년 1월호 참조) 그에 대응하는 비통합이란 용어를 쓰게 된다.

부분통합(partial/imperfect integration)

생산, 가공, 유통의 3단계가 모두 개별 경영하게 되면 이는 삼장비통합(三場非統合)이고 이 가운데 일부 단계, 즉 생산과 가공, 가공과 유통, 또는 생산과 유통이 통합하면 이를 부분통합이라 부른다.

같은 단계인 생산과정에 있어 병아리와 사육, 사료와 사육이 통합할 때도 이는 부분통합이다. 사육

이 시리즈 강좌는 2002년동안 12회에 걸쳐 매월 계속된다.

박영인 박사는 우리나라에 통합경영과 자조금 제도를 맨 처음 소개하여 그 실현에 앞장섰고 삼장통합(三場統合)이란 새로운 용어도 만들었다.

〈편집자주〉

한 닭을 위탁 도계하여 유통과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것도 부분통합에 속한다.

부분통합은 완전통합의 전단계, 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2단계간에 통합하는 것으로 그 효과는 비통합과 완전통합의 중간이라 할 수 있다. 용어상으로 준(準, quasi), 사이비(似而非, pseudo)통합도 광의의 부분통합에 포함된다.

완전통합(complete/perfect integration)

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통합이다. 농장, 공장, 시장 조직과 기능을 모두 통합(三場統合)해야 본래의 통합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하면 일관성 있는 계열경영이 가능하여 통합이점

(advantage of integration)을 다 챙기게 된다.

계약형태의 전형적인 완전통합 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다.

한국 계육산업은 이제 부분통합과 완전통합체계가 주도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비통합은 부분통합, 부분통합은 다시 완전통합을 지향하여 발전해간다. 머지 않아 완전통합이 일반화하는 산업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시장이 완전 개방되면서 국내의 통합체계가 위협을 받는다는 인상이다. 무질서한 수입남발로 기존 체계의 패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의 극심한 가격등락 현상이 그 실례이다.

따라서 이제는 계육수입을 통합체계와 연계시키는 과제를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 앞으로 한국산과 외국산의 완전경쟁체제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일부 비통합 및 통합체계의 탈락, 또는 통합체계간의 기업통합(M&A)도 예상해야 할 것이다.☺

〈그림〉 완전통합구도

